

광주신세계, 전통시장과 '상생' 손잡았다

서구 화정동 서부시장 활성화 불고기 먹거리 관광명소화 등 지역상권 동반성장 협약 체결

광주에 특급호텔과 면세점 등 복합랜드마크 시설을 추진중인 광주신세계가 인근 시장 상인들과 손잡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권 재건에 나서 주목된다.

19일 광주신세계는 광주 서구 화정동 서부시장상인회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 관광 명소화를 위한 협약 체결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광주신세계는 점재 위치에 있는 서부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관광 명소를 만드는 데 노력하며, 서부시장은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개발 중인 광주신세계 복합시설과 함께 지역 내 관광 랜드마크 구축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신세계는 서부시장 내 불고기 먹거리 조성에 힘을 보태고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서부시장 방문 코스화, 고객서비스 등 유통 노하우 전수 등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인정시장'(유행)으로 등록된 화정동 유일의 전통시장인 서부시장은 서구 화운로 일대 1만3240㎡에 총 78개 점포가 영업중이다. 지난 2013년 집계된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자발적으로 조성한 특화거리인



19일 유신열 광주신세계 대표이사와 윤오영 서부시장상인회장 등이 광주 서구 화정동 새마을금고 강당에서 서부시장 활성화와 지역 관광 명소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불고기의 거리'가 자리해 있다. 이곳에는 현재 모두 4곳의 불고기 식당이 입점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번 상생협약 체결은 광주신세계가 복합랜드마크 시설 개발사업과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서부시장 상인회와 오랜 기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서로 간의 우려와 오해를 종식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 광주신세계가 추진하는 복합랜드마크 시설은 지역 내 최대규모의 특급호텔과 시내 면세점, 문화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광주신세계측은 판매시설의 경우 수입명품, 해외 의류, 화장품, 잡화 등 기존 백화점 상품군을 보완하는 측면이 강해 주변 중소상인들을 비롯한 지역상

권과는 상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특급호텔과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내의 관광객을 서부시장으로 적극 유도하는 등 지역상권과의 동반성장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신열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서부시장이 내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최고의 전통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며 "지역과 함께 성장해가는 '따뜻한 기업'이 되기 위해 지역과의 우호협력 상생관계를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오영 서부시장상인회장은 "복합랜드마크 시설이 들어서면 일부 상권이 영향을

■ 광주신세계·서부시장 위치도



받겠지만, 대형 백화점과 전통시장이 부부처럼 한마음이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니 많이 찾아와 힘을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지난 2013년 양동시장 상인회와 함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시장 영업환경에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 기업을 개발, 상인들을 위한 '댄스강좌' 등 다양한 테마의 문화 가치를 제공하는 상생 프로젝트를 3년째 진행해 오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39.38 (-16.88)
- ▲ 금리 (국고채 3년) 1.73% (+0.01)
- ▼ 코스닥 670.55 (-29.25)
- ▲ 환율 (USD) 1185.30원 (+0.30)

코스닥 4%대 급락 '패닉'

中 경기둔화·美 금리인상 악재...코스피도 1930선 추락

국내 증시가 불안하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대형주는 힘이 빠진 지 이미 오래고,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과 중소형주가 급락하며 시장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국내 기업의 실적 부진 등 악재가 쏟아지면서 반등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형국이다. 특히,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한 코스닥의 하락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780선을 넘어서며 800선 고지를 넘보던 코스닥지수는 연일 하락해 19일 장중 650선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날 코스닥은 4.18% 내린 670.55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중국 증시 폭락 등의 영향으로 장중 6.81%까지 급락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지수의 연중 고점은 지난달 20일 기록한 782.64이다. 불과 1개월 만에 110포인트 넘게 급락한 셈이다.

광주·전남 기계설비분야 시공능력평가

성장이엔씨 3025억원 1위 차지

가스분야는 금호산업 1위

전남지역 기계설비업체 성장이엔씨(대표 김기영)가 올해 광주·전남지역 기계설비 분야 시공능력평가액 1위를 차지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회장 이연봉)는 19일, 광주 225개 전남 381개 기계설비업체에 대한 '2015년 시공능력평가액'을 확정·공시했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성장이엔씨가 3025억원으로 광주·전남지역 전체 시공능력 1위를 기록했으며, 광주에서는 대

하산업개발(대표 이정희)이 588억원으로 3년 연속 1위에 올랐다. 가스시공업 1종 부문에서는 전남의 금호산업(대표 박삼구·원일우)이 4058억원으로 1위였으며, 광주에서는 삼덕기업(대표 강성수)이 103억으로 수위를 차지했다. 광주·전남지역 설비건설업체의 2014년 총 기성실적은 1조 6350억원으로 전반적인 불경기속에서도 광주·전남지역 현장에서 7450억 그리고 타지역 및 해외에서 8900억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국내 증시가 과매도권에 진입한 만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시장이 투자심리 악화로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상반기 국내 기업 실적이 비교적 양호하고 저평가 매력도 부각돼 외국인 매도세가 약화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소지한 대학생과 청년대학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벤트 기간 중 5만 원 이상 이용 실적이 있는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최신 테블릿PC 및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ibank.com) 또는 고객센터(1588-3388)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은, 대학생 대상

'청춘체크카드' 출시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다음달 30일까지 새학기를 맞이한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청춘은 체크카드! 대학카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19일 밝혔다.

이벤트 행사는 광주은행 학생체크카드를

출시한 대학생과 청년대학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벤트 기간 중 5만 원 이상 이용 실적이 있는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최신 테블릿PC 및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ibank.com) 또는 고객센터(1588-3388)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19일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기초전력연구원, 전기산업진흥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빛가람 에너지밸리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한국전력 제공>

한전, '빛가람 에너지밸리 정책협의회' 격주로 개최

"지역사회 전문가 의견 함께 반영된 지역발전계획 수립"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는 19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기초전력연구원, 전기산업진흥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빛가람 에너지밸리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한국전력은 에너지밸리 조성과 관련해 고용햇살 프로젝트, 에너지밸리 산학연 R&D 협력방안 등 그동안의 실적과 계획을 설명했으며, 각 자자체는 지역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 그리고

기초전력연구원과 전기산업진흥회는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R&D) 지원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에너지밸리 조성 목표인 기업 500개사 유치는 한국전력의 성장동력 창출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지역의 모든 숙원사업을 일시에 해결하

기 위한 것"이라며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외국기업 유치 등을 포함하여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사장은 특히, "Start-up이나 연구소 기업 등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이끌어내야 기업유치 500개, 일자리 3만개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중단 없는 성장연진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기업의 애로사항인 인력수급을 위해 기초전력연구원과 전기산업진흥회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한국전력이 함께 협력하여 에너지 분야 기초과정부터 전문인력 양성분야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R&D 협력 시스템도 구축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에너지밸리 조성은 물론 지역협력을 위한 핵심 이슈를 발굴, 지역 유관기관과 토론 등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 '에너지밸리 정책협의회'를 격주로 개최해 한국전력과 지역사회 그리고 전문가 의견이 함께 반영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하за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시공전 시공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연제동 광명·새한 2차 특별분양

지금의 기회

탁월한 생활인프라 & 미래가치

첨단지구와 양산지구 사이에 위치한 새한아파트는 79㎡, 방 3개와 욕실 2개 480세대의 고객선호도 100%로 구성된 중상급 아파트로 주위 시세보다 저렴한 남향 로얄층 1억8백만원 선착순(중·후 지정분양)중입니다. 양산초등학교가 바로 위치해 있으며, 대형 롯데마트 입점 예정이며 지하철 2호선 예정지입니다. 교통 또한 밀고올로, 북광주 IC, 임방울대로 등 접근성이 매우 좋고 이용도 편리합니다. 주위 첨단지구와 양산지구 개발의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리며, 시세보다 저렴하고 인기좋은 중상급 아파트로 **내집 마련 절호의 기회**입니다.

3.3㎡당 400만원대 특가분양

특시 입주 대출 70% 가능, 선착순 중·후 지정

높은 수익률 임대사업자 환영

5만·임산지구 중심생활권 우수한 명문학교

상무지구 10분

임대사업자 환영

계약즉시 2,000만원 시세 차익/방 3개, 화장실 2개, 고객선호도 100%만족

특별분양 문의 (062)574-0079